

# 하이힐 오브제로 엿보는 인간 현실

## 김정범 '현실의 시선들' 전

일시 12월 4일(금)~31일(목)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서울 종로구 궁정동 가진화랑

관람료 무료

문의 02-738-3583

**도**자(陶器) 오브제로 하나의 풍경을 그려내는 작가 김정범(47) 씨가 12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가진화랑에서 '현실의 시선들'이라는 전시회를 연다. '하이힐의 작가'로도 불리는 김 씨는 도자로 빚어 구워내 신고 다닐 수도 없는 수많은 하이힐 오브제를 통해 도시 속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풍경처럼 그려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노란 풍경화라는 의미를 지닌 대작 'Yellow Landscape'를 포함해 크고 작은 오브제 20여 점을 선보인다. 가로 길이가 약 3미터에 이르는 'Yellow Landscape'는 노란 하이힐 밑바닥에 자석을 붙여 대형 철판에 붙였다 떼어내기를 자유롭게 할 때마다 작품 전체의 형상이 달라지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2년 전부터 도자로 빚은 신발을 소재로 다양한 시도를 거듭해온 김 씨는 "신발만큼 대중적이고 인간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없다"며 "신발은 인간의 삶과 함께 공존해온 친숙한 소재다. 신발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 주인의 성격과 취향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하이

힐은 디자인이 세련되고 아름다워 자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신발을 쪼개고 붙이고 재배열하다 보면 도자 본연의 색과는 다른 신비로운 색채를 뿜어낸다. 신발의 조합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풍경을 통해 인간의 면면도 엿볼 수 있다. 관객들도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런 재미를 발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홍익대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수학한 후 국내의 개인전과 그룹전에 다수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3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그랑프리국제미술전과 같은 해 앙크르에서 개최된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하며 국제무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작가의 오브제 작품은 현재 아치브레이재단(미국), 서머힐 갤러리(미국), 가진화랑(서울), 클레이아크미술관(김해), 서라벌C&C(경주) 등에 소장돼 있다. **☎** 글·김지영 기자



## 뮤지컬 '퀴즈쇼'

일시 12월 6일(일)~2010년 1월 2일(토) 평일 오후 8시,  
토·일요일 오후 3시, 7시 30분(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관람료 R석 6만원, S석 5만원, A석 4만원

문의 02-577-1987 www.sac.or.kr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초상을 리얼하게 그린 작품으로, 베스트셀러 작가 김영하의 동명 장편소설이 원작이다. 뮤지컬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힘겹고 복잡한 사회에 의도하지 않은 첫발을 내딛는 청년 이민수의 모험을 통해 복잡다단하고 모순 덩어리인 우리 사회와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다. 이 시대 젊은이의 표본인 주인공 이민수 역은 뮤지컬 '주유소 습격사건'의 히어로인 이율이 맡았다.

## '일본 근대 서양화' 전

일시 2010년 3월 21일(일)까지 화·목·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수·토요일 오후 9시까지, 일·공휴일 오후 7시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일본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000 www.museum.go.kr

광복 이후 처음으로 일본 근대 서양화 전체를 전격 공개한 전시다. 인물화와 풍경화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유화 33점, 드로잉 2점, 판화 4점, 파스텔 1점을 선보인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서양화는 일본에서도 그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명품들이다. 특히 이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작가들의 작품들도 포함돼 있어 한국 근대 미술사 연구에도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